Ⅶ. 요약 및 결론

전 세계적으로 금융환경의 변화속도가 빨라지고 불확실성이 증대됨에 따라 금융기관의 리스크관리는 지속적인 생존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우리 나라의 생명보험사 역시 IMF 사태 이후 심각한 유동성위기를 겪은 경험이 있어 리스크관리의 중요성은 크게 제고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환경인식 하에 본 고에서는 현행 우리 나라 생명보험사의 리스크관리 실태를 크게 8개 범주로 구분하여 설문조사를 통해 구체적인 관리수준을 파악한 후, 이를 개선시킬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분석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 나라 생명보험사의 리스크관리 점수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계산하였을 경우 평균 53.9점으로 나타나 50점을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대값은 78.7점, 최소값은 23.4점으로 나타나 최대값과 최소값의 차이인 범위값(range)은 55.3점으로 나타나 개별 생명보험사간 리스크관리 수준에 매우 큰 격차(gap)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위 4사 중 3사의 리스크관리 점수가 평균치를 훨씬 상회함으로써 전체적인 평균값의 상승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반적인 예상과는 달리 자산규모와 리스크관리 점수간에는 유의할만한 正의 상관관계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난 점은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된다.

둘째, 부문별 리스크관리 점수를 살펴보면 ① 리스크 통제와 관련된 점수가 78.1점으로 가장 높고, ② 리스크 관리원칙과 규정 64.4점, ③ 리스크 측정 기준 및 방법 63.3점, ④ 리스크 관리조직 및 기능 57.0점 순으로 나타나 이들 항목은 평균점수를 상회하여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한도관리는 ⑤ 50.6점으로 평균점수를 하회하였으며, ⑥ 성과측정은 40.6점, ⑦ 내부통제 38.1점, ⑧ 시스템 28.1점 등으로

이들 부문은 평균치를 크게 하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우리 나라 생명보험사의 리스크관리는 리스크관리 절차상 전반 단계에 해당하는 부문은 어느 정도 정비되어 가고 있으나, 후반 단계에 해당하는 부문은 아직도 매우 취약하여 소위 "전고후저(前高後低)"형인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자산규모 기준에 의하여 범주별 리스크관리 현황을 비교·분석하면, 8개 부문 모두에서 상위5사의 평균점수가 기타11사보다 높았다. 리스크관리원칙, 측정기준, 한도관리, 성과측정 부문에서의 양 그룹의 점수 차이는 10점 미만으로 낮았으며, 특히 성과측정의 경우 기존5사(40.0점)와 기타사(37.5점)간의 점수차이가 2.5점에 불과하여 거의 모든 생명보험사가 미흡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내부통제의 경우 기존5사(63.3점)와 기타사(18.1점)간의 점수차이가 45.2점으로 매우 크게 나타났는데, 이는 기타사의 내부통제가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데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스템과 관리조직 역시 30점 정도의 격차가 존재하였으며 리스크 통제부문에 대해서는 기존5사의 점수가 23.3점 높게 나타났다.

넷째, 소유형태별 리스크관리 점수는 2개 부문을 제외하고 외국관련사의 점수가 순수국내사 보다 높게 나타났다. 동 기준에 의할 경우 점수차이는 자산규모에 의할 경우보다 대체적으로 낮게 나타났는데 가장 큰 격차를 보이고 있는 부문은 성과측정 부문이다. 외국관련사의 성과측정 부문 점수가 62.5점인데 비해 순수국내사는 33.3점에 불과해 29.2점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측정기준 역시 외국관련사가 순수국내사 보다 22.6점 높게 나타나 주로 리스크를 측정하는 부문에서 외국관련사의 리스크 관리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리스크 관리조직의 점수차이는 3.1점에 불과하였고, 한도관리 부문의 점수 차이 역시 9.2점으로 높지 않았다. 전체적으로 외국관련사와 순수국내사간 리스크관리 점수 차이가 12.1점으로 나타났지만, 통계

적 검정 결과는 양 그룹간 차이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본 고에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는 1998년에 실시된 이봉주(1999)의 결과와 비교할 경우 우리 나라 생명보험사의 리스크관리 수준이 적어도 하드웨어(hardware) 차원에서는 크게 개선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예를 들면 1998년에는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한 생명보험사가 조사대상의 17.0%에 불과한 3개사에 불과하였으나, 본 고에서 실시한 2000년 조사에서는 87.5%에 해당하는 14개사로 크게 증가하였다. 다시 말하면 1999년 이후 대부분의 생명보험사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한 것이다. 또한 리스크관리 전담부서 역시 1998년 조사에서는 23.5%인 4개사에서만 설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본 고의 조사에서는 40.6%인 6.5개사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하드웨어 측면에서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운용측면인 소프트웨어(software)에서는 아직도 개선의 여지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생명보험사가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 위원회에서 리스크관리 정책에 대한 결정을 내리고 평가를 수행하는 등 실질적인 기능을 발휘하는 회사는 25.0%에 불과한 4개사로 나타났다. 또한 리스크관리위원회 구성원의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구성원에 대한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회사 역시 2개사에 불과하였으며 리스크관리 전담부서에 보험계리인이 1명도 배치되지 않아 리스크관리 인력의 전문성이 부족한 회사도 다수 존재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는 생명보험사의 리스크관리가 많이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향후 개선되어야 할 과제가 더 많음을 의미한다. 즉 리스크관리가 완성된 체제 내에서 인식 → 측정 → 평가 및 보고라는 사이클이 유기적으로 작용하여 실질적으로 리스크관리가 생명보험사 경영의 판단지표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개선되어

야 할 과제를 안고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전반적인 구축·운영 수준이 매우 미비한 것으로 나타난 성과측정, 시스템, 내부통제 부문에 대해서는 모든 생명보험사가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관련 제도 및 시스템 등 인프라를 정비·구축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전고후저(前高後低)"형으로 취약한 현행 리스크관리 체제를 중·장기적으로는 "고원(Plateau)"형으로 상승·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본 논문은 현재 우리 나라 생명보험사의 리스크관리 실태를 각 범주별로 구분하여 관리수준을 점수로 구체화하여 상대적 비교·평가를 한 후 이를 통해 향후 대응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실천적인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분석방법상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

첫째, 각 범주에 대한 일반화된 설문내용 및 문항이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시안적인 측면에서의 분류방법에 따랐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는 것을 배제할 수 없게 되고, 그 결과 어느 정도 분석상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각 범주별 문항에 대한 통계적 분포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도 분석 결과를 일부 왜곡할 수 있는 한계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둘째, 분석대상인 생명보험사의 규모가 16개로 매우 작기 때문에 다양한 통계분석을 시도하기 어려웠다는 점이다.

향후에는 좀더 정형화되고 정치한 분류 기준에 의해, 또한 다양한 통계적 기법을 활용하여 우리 나라 생명보험사 및 손해보험사의 리스크관리 행태를 분석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